

-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 -

연구 활동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목 차 -

I. 연구 개요	1
II. 연구 방법	3
III. 서구 역사문화환경 현황	4
IV. 세부 연구활동	11
V. 정책 제언 및 총괄	29

연구 활동 보고서



1. 연구 개요

- **연구단체명** :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
- **연구주제**
 - 국내·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탐방을 통한 서구 향토문화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배경**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내외 역사문화, 자연 등 유산을 탐방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서구 향토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서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 **연구목적**
 - 국내외 도서지방 및 역사적 장소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보전·관리 및 활용실태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 구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에 접목시켜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서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연구를 통해 지방의원으로서 안목을 넓히고 향후 주민과의 소통 및 구 정책 발전방안 모색에 이용
- **연구내용**
 -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향토 유적지 등의 역사 지역을 탐방하여 환경 분석 및 특성 파악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연구
 - 현장 연구 대상지 내 역사자원, 생태자원, 환경자원, 조망자원 등 분석을 통해 서구와 접목 가능한 자원간 연계성 제고

- 지리적 입지와 역사적 전통, 사회적 구성, 문화적 독창성, 환경성 등을 담은 대표적인 지역 탐방 연구

● **연구활동 기간** : 2023. 3월 ~ 11월

● **연구단체 구성** : 총 5명

- 서구의회 의원 : 5명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회 장	심 우 창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위원회)
2	위 원	김 미 연	서구의회 의원(복지도시위원회)
3	위 원	유 은 희	서구의회 의원(자치행정위원회)
4	위 원	박 용 갑	서구의회 의원(복지도시위원회)
5	위 원	홍 순 서	서구의회 의원(자치행정위원회)

※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활동 추진



II. 연구방법

● 연구방법

■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계획 수립 및 포럼 운영

- 시 기 : 연구단체 활동 기간 내
- 대 상 : 연구단체 소속의원, 자문위원 등
- 장 소 :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
- 추진방법
 -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회의 실시
 - 포럼 연구 주제에 관한 토론회 실시

■ 인천 서구의 향토문화 및 문화재 등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시 기 : 연구단체 활동 기간 내
- 대 상 : 연구단체 소속의원, 자문위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 장 소 :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 및 관련기관 등
- 추진방법 : 현장 방문 및 기관 담당자 자문 등을 통해 서구 전통문화 연구 및 발전방안 모색

■ 국내·외 역사문화 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

- 시 기 : 연구단체 활동 기간 내
- 대 상 : 연구단체 소속의원, 자문위원 등
- 장 소
 - 인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인천 중구 한국 이민사 박물관
 - 강화도 역사박물관, 고인돌 유적지, 고려산 등
 - 무형문화재 전수관
 - 수원화성 행궁
 - 몽골국 등 해외 비교시찰
 -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위원 의견을 고려한 우수 지역 등
- 추진방법 : 지역탐방을 통해 역사 등을 연구하여 서구에 접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IV. 서구 역사문화환경 현황

●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

■ 문화재 지정 현황(2023. 5월 기준)

-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시지정문화재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2)

종 목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소 재 지	지정일자
사 적	211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6.061m ²	경서동 385	1970. 6. 8.
천 연 기념물	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1주	신현동 131-7	1982.11.09.

- 시지정문화재(15)

종 목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소 재 지	지정일자
유 형 문화재	32	심즙신도비	1기	공촌동 산8	1994.11.04.
	70	선문염송설화	30권/ 10책	가좌동 81-78	2015.12.02.
기념물	5	류사늘묘	1기	경서동 산200-1	1990.11.09.
	6	조서강묘	1기	석남동 산119-2	1990.11.09.
	33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1기	대곡동 147-1	1995.03.02.
	54	한백륜 묘역	1기	마전동 산120-4	2004.04.06.
	57	김안정 묘 및 출토묘비	1기	원당동 810-10	2008.12.01.
	58	허암 정희량 유허지	3,500m ²	검암동 산61-5	2009.03.02.
	59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1기	대곡동 213-9	2010.04.27.
	60	의령남씨 종중 묘역	1기	원당동 산82-1	2010.04.27.
	61	평산신씨 종중묘역	1기	대곡동 산120-1	2010.04.27.
문화재 자료	26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1구	석남동 175-9	2014.04.16.
무 형 문화재	18	서곶들노래	-	-	2008.12.10.
	20	휘모리잡가	-	-	2008.12.10.
	23	판소리.고법	-	-	2013.04.30.

■ 비지정 문화재 현황

· 향토유적(6)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숙 의 문 씨 묘	심곡동 산36	
2	가 정 지	가정동 488-10	
3	경 인 고 속 도 로 기 공 지	가좌동 566	
4	축 곶 산 봉 수 대 지	가정동 산54	
5	중 심 성 지	공촌동 산1-1	
6	연 희 진 지	연희동 735-2	

· 향토유물(525)

연번	문화재명	수량	비고
계	-	525	
1	낫, 호미 등 농기구 19종	21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
2	채반, 삼태기 등 생활용품 14종	22	
3	가마솥, 맷돌 등 조리도구 16종	31	
4	귀때토기 등 토기류 14종	14	
5	비녀, 경대 등 의생활용품 42종	58	소장 및 전시
6	책궤, 반닫이 등 가구 15종	25	
7	악기, 공구류 34종	43	
8	고문 서류	309	서구문화원 소장
9	상여 1세트	1	
10	효자정려 현판	1	

* 무형문화유산 : 서곶들노래, 휘모리 잡가, 판소리 고법

■ 향토문화유산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2015.10. 제정)」에 따라 서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예산확보 현황

■ 향토문화유산 관련 예산현황

- 문화관광체육과 전체예산 대비 3개년('21년~'23년 본예산 기준) 향토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평균 0.78%로 매우 작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 향토문화유산 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비 고
문화관광체육과	20,704	17,591	22,038	-
향토문화분야	45.6	152.2	273.2	-
비 중	0.22%	0.87%	1.24%	-

※ (2023년) 문화재 관리사업(27,653)/천연기념물 관리(18,000)
 (2022년) 생생문화재사업(50,000)/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50,000)/문화재 관리사업(52,240)
 (2021년) 문화재 관리사업(253,228)/천연기념물 관리(13,000)/안내 판정비(7,000)

■ 인력 현황

- 서구청 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문화재관광팀)으로 1명이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 천연기념물·향토유물 관리,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 등을 모두 담당함.

구 분	담당 업무
문화재 관광팀장	· 문화재관광팀 업무 총괄, · 문화재관광팀 업무 관련 지시사항 및 시책추진
주무관 1	·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 · 천연기념물, 향토유물 관리 등 ·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 지명위원회 관리
주무관 2	· 서구문화원, 녹청자 박물관
주무관 3	·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개발 관련 업무 · 정서진 관광개발 관련 업무 및 협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아라뱃길 카약축제, 정서진 해넘이 행사 등
주무관 4	· 관광안내체계 구축, 게임산업 관리, 관광사업 관리
주무관 5	· 음악산업 관리,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 변경/행정 처분/지도점검, 관광안내체계 구축, 팀 사무

- 인천광역시 문화재, 관광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도심권, 강화권, 용진권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으로 서구는 검단선사박물관에만 배치되어 있으나 그 외 안내, 해설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 실정임
- 그 외 인천관광공사에서 육성하는 관광두레PD¹⁾도 아직 없는 실정임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종하는 사업으로 매년 인천관광공사에서 예비두레PD,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두레PD를 모집 양성 중

●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관련 제도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목적
-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예술·학술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향토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

구 분	정 의
시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시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시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정의함
- 지자체에서는 향토문화유산 관련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향토문화유산’ 정의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예정임

구 분	정 의	관련 조례
1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	·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 의성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

2	향토유산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3	향토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또는「○○○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인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4	전통 문화유산	○○○에서 행해지는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 등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적 유산 -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제향,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대전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남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5	전통문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축·공예·무예·무용·문학·미술·의상·음식·음악·인물·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6	무형 문화유산	국가·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 향토 문화유산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통의례, 전승 교육, 행사 등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 ·서울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조례
7	보호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
8	지질유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	농어업 유산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남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10	농업유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	·담양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강진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11	산업유산	옛 모습을 간직한 산업건축물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12	미래유산	근현대 ○○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단,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근대건축물은 제외	·서울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3	지역유산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가 아닌 것 - ○○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것 - ○○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 관련 정책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 3,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전략2)을 위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은 로컬콘텐츠 발굴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및 지역활성화 기여

구 분	주 요 내 용
지역문화자산 '보존'	지역 향토자료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공개, 각 지역 근대 기록유산 조사·수집, 현대 생활사 구술·채록 등
지역문화자산 '발굴'	지역문화매력 기자단(4050 및 6070 기자단) 운영, 지역 고유 문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지역문화자산 '매력화'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 선정·홍보, 지역공공캐릭터 활성화, 주간문화예부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 ‘로컬 100’ (2023. 10,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대표적인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역문화 명소(58개), 지역문화 콘텐츠(40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 명인(2명)을 2023년 9월 선정하여 향후 2년간 (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기여
- ‘지역 문화공간’ 분야에서 서구 녹청자박물관이 지정되었으나 ‘지역 문화유산’ 분야에는 지정되지 못함

■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 6.)

-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화
 - 미흡한 지역문화전문인력 활동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문화기획자 및 문화행정가 등을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문화시설 등에 배치 운영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인천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보전·활용 진흥
 - 인천 시민유산제도 도입, 시민 문화유산 기증 활성화, 시민기록단 구술사 운영 등 시민참여형 문화유산 발굴
 - 시민이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참여를 위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제작·판매·체험교육 등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문화유산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유산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연계 활용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 근대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광 육성, 소규모 섬 체류·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 도심속 생태관광 콘텐츠 육성, 전통 시장·음식·노포·골목길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형 관광 육성



IV. 세부 연구활동

- 역사문화유산 보전·관리 또는 역사문화생태자원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국내외 우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자료 조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서구 향토문화 활성화 정책 연구
- 현장방문 추진실적

구분	방문장소		일시	참석자수
1	인천 중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동구), 한국이민사박물관(중구)	4. 4(화)	12명
2	인천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고인돌유적지, 백령사(고려산), 광성보	4.18(화)	10명
3	인천 서 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한마당	5. 6(수)	10명
4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장안문, 화서문, 연무대), 행궁동 왕의 골목	5.17(수)	14명
5	몽골(울란바토르)	테를지국립공원, 날라이흐구청, 칭기스칸 은마동상, 칭키스칸 박물관 등	6.30(금) ~7. 4(화)	11명
6	인천 서 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시관	7. 8(토)	11명
7	경기 여주시	신륵사관광지(신륵사, 여주박물관, 여주도자세상)	8.17(목)	10명
8	일본(대마도)	조선국역관사순난비, 한국전망대, 최익현순국비, 덕혜옹주결혼봉축 기념비, 고려문 등	10.31(화) ~11.2(목)	9명
9	강원 철원군	노동당사, 철원역사문화공원, 고석정, 한탄강주상절리길	11. 9(목)	15명
10	인천 서 구	경서호상놀이 정기발표회	11.11(토)	7명

* 몽골 및 일본 현장방문은 연구개발비 미사용 및 개별 자부담 방식으로 추진

* 간담회(9회)

- 4.4(화) / 4.18(화) / 5.17(수) / 6.22(목) / 7.20(목) / 8.17(목) / 9.21(목) / 10.12(목) / 11.9(목)

● 제1차 정례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 추진목적 : 자문위원 위촉, 세부 활동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일시/장소 : 2023. 3. 23(목) / 서구의회 간담회장
- 참석인원 : 총 11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5명), 자문위원(6명)
- 주요내용 : 연간 세부 활동계획 작성
 -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계획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 및 위촉장 수여
 - 정책 자문위원은 문화, 역사 등 분야 9명으로 구성



● 제2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근현대사 역사자원 활용 우수지역 벤치마킹
- 일시/장소 : 2023. 4. 4(화) / 인천 중·동구
- 참석인원 : 총 12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5명), 자문위원(5명), 의회사무국 직원(2명)
- 주요내용 : 인천의 역사 및 과거 서민의 생활상 등을 둘러보고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를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발전 방안 모색
 -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 (인천 동구)
 - 역사 속에 실존했던 달동네 서민의 평범함 삶과 생활을 살펴볼 수 있고 동구 근현대사를 전시하고 있는 동구 대표적인 문화공간임
 -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들을 주민들의 기증을 통해 박물관 내 재현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구립박물관으로 주말에는 어린이들에게 동화로 들려주는 달동네 이야기

등 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와 교육을 접목시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주민의 삶을 기록·전시·재현하는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향토문화유산 확보 및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통해 서구만의 특화된 박물관 건립 추진 필요



·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 중구)

-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장을 배경으로 첫 여권, 첫 선박 및 이민 과정,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 사진, 유물 등 100여년의 한인 이민 역사가 전시되어 있음
- 인천시민과 해외동포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 이민을 테마로 건립한 더욱 의미있는 박물관임
- 최초·최고·유일 등 차별화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사례임





● 제3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지역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 관련 문화재 및 문화시설 방문
- 일시/장소 : 2023. 4. 18(화) / 인천 강화(강화역사박물관, 고인돌유적지, 백련사 등)
- 참석인원 : 총 10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3명), 자문위원(4명), 의회사무국 직원(3명)
- 주요내용 : 다양한 유물 및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화도 현장방문을 통해 향토문화 정책연구 자료 활용

· 강화역사박물관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 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에 위치한 강화역사박물관은 유물전시·연구·수집 등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전
-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물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도 개최 중임



· 고인돌유적지

-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묘제의 하나로 사적으로 지정된 북방식 고인돌은 2000년 11월 29일 고창, 화순 고인돌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



- 강화 고인돌 테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높음

- ▶ 서구 고려시대 고인돌(대곡동)은 시 기념물로 지정·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등 미운영 상태로 향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방안 필요

· 고려산 백련사, 강화 강성보

- 고려산 일원은 백련사와 오련지 등 많은 문화재가 보전·관리되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자 매년 진달래 축제를 개최하는 곳임
- 강화 해양 경계부대인 12진보 중 하나로 1658년 설치된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군대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현재 광성돈대, 쌍충비각, 신미순의총 등 역사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고 문화재 야행 등 역사자원을 특화시킨 축제도 개최하고 있음
- ▶ 문화재 야행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서구만의 특색있는 축제 개최,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해 서구 역사의 정체성 강화 필요



● 제4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고유의 예술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례 조사
- 일시/장소 : 2023. 5. 6(수) / 무형문화재전수관
- 참석인원 : 총 10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5명), 자문위원(5명)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한마당’에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의 작품 종류와 유래 과정 등 역사적 가치 제고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한마당
 - 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서곶 들노래’는 인천 서곶지역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모심기와 김매기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로 매년 정기 발표회를 통해 전승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
 - ▶ ‘서곶들노래’ 공연을 포함한 민속예술공연과 다양한 전통 체험마당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바, 지속적인 확대 추진 필요



● 제5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문화재 보존·관리와 프로그램 등 활용실태 조사
- 일시/장소 : 2023. 5. 17(수) / 수원 화성
- 참석인원 : 총 14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5명), 자문위원(2명), 의회사무국 직원(7명)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을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실태 벤치마킹
 - 화성행궁
 -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1796년 9월 축조한 우리나라 성곽건축 중

- 가장 독보적 건축물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화성행궁은 1996년 1단계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3년 10월 일반에게 공개된 후 지금까지도 복원공사가 진행 중임
- 영화, 드라마 등이 제작되면서 한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화성, 행궁 등을 잇는 반나절, 당일, 1박 2일 등 관광코스과 주변 공방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함

▶ **역사문화유산과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화성어차**

- 순종이 탔던 자동차와 조선시대 국왕의 가마를 모티브로 특수 제작된 화성어차는 수원화성 주요 장소, 전통시장 등을 순환하는 관광열차임
 - ※ 연무대, 화홍문, 장안문, 화서문 등 수원화성과 더불어 성과 내외부의 도시모습을 관람할 수 있으며 각 지점마다 관광안내 해설 지원

-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자동차 특례법을 개정하여 화성어차를 자동차로 등록시켜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청라커널워크 등 환경, 생태, 관광자원이 밀집된 공간에 ‘가칭)서동이열차’ 를 도입하여 서구만의 특화된 관광 교통수단 운영 검토 필요**

· **행궁동 왕의 골목**

- 수원 행궁동 일원에 조성된 벽화골목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역사와 옛 이야기, 마을 내 문화유적 및 벽화 등에 대해 안내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마을해설사 등 문화인력 양성 및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 소개 및 도보관광 활성화 도모 필요**





● 제6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몽골 문화관광자원 활용정책 비교시찰 및 전통문화 체험
- 일시/장소 : 2023. 6. 30(금) ~ 7.4(화) / 몽골(울란바토르)²⁾
- 참석인원 : 총 11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4명), 서구의원(1명), 자문위원(6명)
- 주요내용 : 몽골³⁾ 친환경 정책 및 도시조성 실태 등에 대한 비교시찰 및 문화관광자원과 전통문화체험
 - 몽골국 울란바타르시 날라이흐구청과 교류 협약
 - 날라이흐구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곳으로 도로, 철도, 항공교통, 관광산업이 발달함
 -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몽골국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지속적인 교류 추진 발판 마련



· 테를지 국립공원 및 칭키스칸 기마상 투어

- 테를지 국립공원은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70km 거리에 위치하여 초원과 기암괴석, 숲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임

2) 몽골 현장방문은 연구단체 연구개발비 미사용 및 개별 자부담 방식으로 추진

3) 면적 : 1억 5,641만 2천ha / 인구 : 344만 7,157명 / 수도 : 울란바타르 / 민족 : 몽골족(94.9%), 투르크족(5%), 기타(0.1%) / 언어: 몽골어(90%), 우르크어, 러시아어

- 칭키스칸 기마동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천진별덕 초원에 세워진 몽골 최대 건축물로 몽골 대표 랜드마크임
- **자이승 전승탑(전망대) 방문**
 - 몽골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에 세워진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톨강 주변의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함
 - 몽골과 소련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모자이크 그림 등 볼거리를 제공함
 - ▶ 서구 내 서해, 국제도시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도입 검토 필요
- **몽골의 문화 체험**
 - 인간의 첫 가옥 형태로서 몽골 유목민 전통가옥인 게르는 자연과 인간의 수 백년 동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는 가장 오래된 가옥임
 - 몽골 전통적인 악기 연주, 노래 공연 등 몽골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 필수코스로 자리 잡음
 - ▶ 서구 내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숙박 및 다도·서예·음식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상설 공연을 위한 공연장 또는 공간 확충 필요



- **이태준기념공원 방문**
 - 일제강점기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베풀었던 이태준 선생을 기린 공원임
 - 1914년 울란바토르로 이동하여 의열단 활동에 참가하는 등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의사임



● 제7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고유의 전통문화 전승 보급 관련 문화체험
- 일시/장소 : 2023. 7. 8(토)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 참석인원 : 총 11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5명), 서구의원(2명), 자문위원(4명)
- 주요내용 : 민속예술공연 및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향토문화유산 가치 제고
 - 제16회 축대고잔 지경다지기 정기발표회
 - 경서동, 오류동, 반월촌 등 바닷가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을 짓기 전 집터 다지기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로 서로의 집터를 다지면서 새로운 집터로부터 재앙을 쫓고 축복하는 의식이 담겨있는 행동임
 - 지역사회 스스로 잊혀져 가는 향토문화인 우리 민속놀이를 보전하여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음
 -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 및 전승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



● 제8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역사와 문화예술 및 관광을 접목한 지역활성화 사례 조사
- 일시/장소 : 2023. 8. 17(목) / 경기도 여주
- 참석인원 : 총 10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4명), 의회사무국 직원(6명)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역사자원 보전 및 활용 방안 및 체험프로그램·관광상품 등 콘텐츠 개발 비교시찰

· 여주 신록사

- 현재 조사당, 다층석탑, 다층전탑 등 보물 7점과 도 유형문화재 극락보전 1점이 보존된 전통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하였다는 이야기, 뛰어난 자연경관 등으로 14.7만명('22년)이 방문함
 - 템플스테이, 나옹예술제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화장실·주차장, 경사로, 점자블럭 등이 잘 갖추어져 무장애 열린 관광지임
 - 660여년 전 고려 공민왕 때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은행나무를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 은행나무 세 줄기 가지 사이로 보여지는 관세음보살 모습
 - 접근로 중 일부 구간은 관리 소홀로 잡초, 바닥 침하 등 발생
- ▶ 관광약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



· 여주박물관

- 여주 역사와 민속자료 등을 조사 수집·전시·교육하고 학술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으로 여마관(신관), 황마관(구관)으로 구성됨
 - 전통문화교육, 박물관대학, 어린이체험 및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전시를 통해 문화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 박물관 등 특정 기능에만 한정되기보다 체험 등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필요



· 여주도자세상

- ‘도자기’ 라는 테마로 전시·교육·판매, 인력양성 등이 집적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매년 도자기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임
- 문화예술과 산업을 집적시켜 도자공예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활성화 도모 중
 - * 창작지원센터, 문화센터 및 판매시설[리빙숍(생활도자기), 아트숍(관광기념품), 갤러리샵(입주작가 작품)] 등 운영 중
- ▶ 역사문화자원간 연계 또는 직접화, 역사자원과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제9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조선통신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
- 일시/장소 : 2023. 10. 31(화) ~ 11. 2(목) / 일본 대마도⁴⁾
- 참석인원 : 총 9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4명), 자문위원(3명), 서구문화재단(1명), 외부위원(1명)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역사자원 보전 및 활용 방안 및 체험프로그램·관광상품 등 콘텐츠 개발 비교시찰

4) 일본 현장방문은 연구단체 연구개발비 미사용 및 개별 자부담 방식으로 추진

- (1일차) 도노자키, 미우다하마, 한국전망대, 오우라 등
 -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 상륙지(100주년 기념비), 쓰시마 해전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로서 주변 전망 뛰어나 트레킹 코스와도 연결되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 대마도 최북단 한국전망대는 맑은 날 부산 거리가 보이는 ‘국경의 섬’ 으로 일컬어 지는 곳으로 파고다 공원 정자 형태로 1997년 건립됨
 - * 설계단계부터 한국 전문가 자문, 한국산 재료 구입 등 철저히 한국풍으로 건립
 - 리아스식 해안선 등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고 있음
- (2일차) 조선통신사접우노지비, 덕혜옹주결혼봉축비, 최익현순국지, 이시야네, 나카라이기념관 등
 - 1703년 108명의 역관사(통역관)으로 구성된 통신사 사절이 탄 선박이 향해 중 좌초된 해난사고와 관련하여 1991년 역관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조난현장이 보이는 언덕에 추모비가 설치됨
 - * 통신사는 에도시절 50회 이상 경조사, 외교 상 의견 절충 등 필요시 방문
 - 대마도박물관 분관 - ‘대마도 조선통신사 사료관’ 이 구성되어 있어 에도시대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교류와 당시 문화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882년 ‘춘향전’ 번역되어 대마도에 소개되기도 함
 - * 신라불상, 고려불상, 범종 등 당시 대륙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 현존
 -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전통 돌지붕 창고,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사이를 두껍게 쌓아 놓은 돌담인 방화벽 등 과거 도시 모습이 곳곳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 한편 대마도는 덕혜옹주결혼봉축비, 한국 표류민의 집단 거주지 표민옥적 등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와 관련된 역사자원을 볼 수 있음
- (3일차) 고려문, 엔쯔지, 대선월, 만제키바시, 에보시카케 전망대 등
 - 당시 성문을 조선통신사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고려문’ 으로 부르게 된 후 역사적 문화재로 평가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됨
 - * 1987년 태풍으로 완전히 파손된후 현재 복원된 시설
 - 문화교류 역할도 담당했던 통신사의 흔적으로 고려사 약불, 고려범종 문화유산과 조선통신사 이에 공적비가 보존되어 있음

- 대마도관 하룻베이라 불리는 에보시다케 전망대, 섬과 섬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붉은 다리 만제키바시 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생태자원, 문화자원을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관광코스로 상품화하는 등을 단순히 역사문화자원을 소개 및 홍보하기보다 특화 테마를 도입하여 차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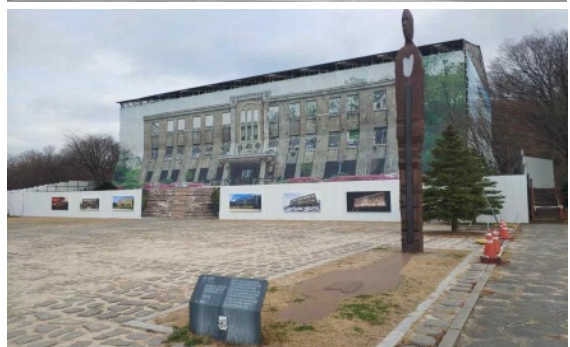


● 제10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안보·역사·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 일시/장소 : 2023. 11. 9(목) / 강원도 철원군
- 참석인원 : 총 15명
 - 연구단체 의원(2명), 자문위원(2명), 외부위원(3명), 의회사무국 직원(8명)
- 주요내용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역사자원 보전 및 활용 방안 및 체험프로그램·관광상품 등 콘텐츠 개발 비교시찰

· 노동당사

- 노후로 인해 현재 문화재 정비공사 진행 중(국가등록문화재 22호)
 - 해방 후 6.25전쟁 전까지 공산 치하 5년동안 북한이 관리하던 시설로 미군이 사용하는 등 역사적 장소이자 영화, 뮤직비디오 장소로 사용됨
 - *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영화 강철비 등 촬영 장소
 - 지역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의미 부여
 - * LED 미디어 보드는 분단된 기간을 시간:분:초로 나누어 나타냄
- ▶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존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도 필요



· 철원역사문화공원

- 6.25전쟁 이전 1930년대 한반도 중부권역 주요 도시로 번성했던 철원 시가지(건축물, 거리 등)를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재현한 곳
 - * 철원역, 극장, 공립보통학교, 우편국, 약국, 양장점, 금융조합, 여관, 소방조기구치장 등

- 1920~30년대 모던걸·모던보이 의상체험, 우편국 내 전보 체험, 무성 영화 관람 등 당시 생활상과 모노레일, 인력거 탑승 체험이 가능하며 향후 숙박공간도 조성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중
- 재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외관과 내부공간은 한계점으로 보임
- ▶ 소실된 문화유산 재현사업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재현되어야 당시 모습을 현실감있게 받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고석정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1억년 전 철원 옛땅을 기억하는 바위
- * 철원이 용암으로 덮이기 이전에 있던 기반암인 화강암이 현무암 용암류에 덮였다가 한탄강 침식작용으로 새로운 물길이 형성되면서 지표로 드러난 남한 유일 현무암 분출지



- 지질명소 해설 및 홍보를 위해 지질공원해설사 3명을 별도 운영
- * 자연공원법(환경부)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 전문적으로 수행
- 자연경관과 더불어 조선 명종시대 임격정 활동 이야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유람선, 가을 ‘고석정 꽃밭+축제’, 겨울 ‘물윗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요소가 접목되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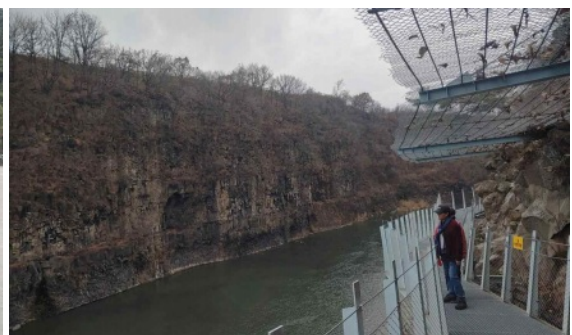
- ▶ 고석정을 중심으로 역사자원,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요소와 관광편의시설 등을 집적시켜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



· 한탄강 주상 절리길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 및 절벽을 따라 총 3.6km(폭 1.5m) 허공을 걷는 잔도길
- 2021년 개통 후 1년 만에 100만명을 기록(' 22.11월)했고 입장권 수입 73억과 함께 철원사랑상품권 교환액이 약 35억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 지역을 넘어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시 국시비 확보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





● 제11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추진목적 : 지역 장례의식을 전통문화유산으로 활용한 사례 조사분석
- 일시/장소 : 2023. 11. 11(토) /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 참석인원 : 총 7명
 - 연구단체 참여의원(3명), 자문위원(4명)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한마당’에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의 작품 종류와 유래 과정에 대한 가치 제고 및 문화정책 연구
 - 전통장례문화 ‘경서호상놀이’ 정기발표회
 -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서구 지역 민속예술로 서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일환으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에서 개최함
 - 전통장례 재현을 통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참가자를 모집하여 상여들기, 만장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승 까지도 가능하도록 운영함
 - ▶ 무형문화유산을 많은 관광객 등이 방문하는 축제 등 개최 시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홍보함으로써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 필요





V. 정책 제언 및 총괄

□ 정책 제언

● 지속적인 향토문화유산 조사 및 발굴을 통한 보존·관리

■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기록화

- 지역 역사, 문화 등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자산화
- 지역 내 다양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DB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행정역량 강화

■ 향토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법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등 추진

- 「(가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現 ‘향토문화유산’ 정의가 지역성, 문화재적 요소가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 인물, 경관 등 다양한 요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변경 예정
- 향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맞춰 조례 개정 또는 제정 등 추진

■ 부족한 행정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지정·해제 등 허가 등 행정업무와 기초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활용사업 추진 등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스토리텔링 등 로컬콘텐츠 확충

■ 향토문화유산 관련 이야기 발굴 및 로컬콘텐츠 개발

- 인물, 역사적 사건 등 관련 이야기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개발

■ 역사자원과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공연,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 지역 자원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굿즈 개발, 각 자원들을 연결한 테마 코스 개발 등 관광상품 확충

● 마을해설사, 스토리텔러 등 지역 전문가 양성

■ 지역 내 창의적인 맞춤형 인력 발굴 및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하여 숲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마을골목해설사 등 지역자원과 이야기(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 문화기획자, 실버 로컬스토리텔러 등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추진

●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유희·노후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및 확충

-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유희·노후공간을 전시, 문화교육·체험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관광시설 내 외부공간을 활용하거나 유희공간을 공연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 또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등 무장애 관광환경 마련

- 보행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점자 안내 등 관광편의시설 개선

□ 총괄

- 연구단체의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제언에 따라 서구청은 향토 문화유산 조사·발굴과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 개발, 교육·체험 등을 위한 광장·공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도시, K-헤리티지 도시 서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요청

2023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

• 단 체 명 :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 활동기간 : 2023. 3월 ~ 11월

• 연구활동

- 서구의회 : 심우창(대표의원), 김미연, 유은희, 박용갑, 홍순서
 - 정책지원관 : 이철식
-